

## 직업에 대한 만족도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세계 제2차 대전중 독일에 유대인을 수감한 한 수용소에서 새해가 되면서 원인 모르게 수감자들이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었다. 원인을 조사해본 바 수감자들은 크리스마스 특사로 석방되리라는 희망으로 살아왔는데 풀려나지 않자 희망을 상실해서 죽어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먹고사는 동물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독일 수용소에서 유대인의 죽음은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사람이 직업을 갖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수도 있고 자기실현이나 직업을 통한 사회봉사, 일하는 것 자체가 좋아서, 사회와의 관계를 맺을 수 있어서, 경제적 풍요를 위해서 등 다양하다. 그러나 자기 직업을 통해서 이러한 목적들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즉, 희망을 상실하게 되면 심각한 불행이 시작되고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

매일경제신문이 창간을 기념하여 기업관, 직장관 등에 대한 조사의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농민들이 농업에 대한 만족도가 조사직종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그 어느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보다도 가장 만족도가 낮다는 의미는 기회만 오면, 여건만 허락하면 농업에서 손을 떼겠다는 것이고 나이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농업에 종사한다면 '나는 어찌다 농사꾼이 되었는가'를 한탄하며 일을 해야 되니 그 삶이 불행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번 조사는 농림업으로 나와있어 이중 축산농가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 인지는 알 수 없지만 최근 '계속 축산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면 당황하게 된다. 이런 질문을 하는 농가가 많을수록 우리 축산업이 그만큼 불안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일에 대한 보람도 희망도 없어진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도 떠나는 농촌은 계속될

것이고 돌아오는 농촌은 멀어져만 가게 된다.

지난해 중소기업 사장들의 계속된 자살로 중소기업이 얼마나 어려운 가를 짐작케 하였고 사업에 실패하고 희망을 잃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을 보았다. 참으로 사람이 희망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다.

농민이 자기 직업에 대하여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물론 농촌 총각이 결혼하기 힘들다는 것은 농업의 경제적 지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까지도 최하위로 곤두박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번 15대 총선에서 각당의 전국구 후보에 농민대표가 빠졌거나 아니면 당선권 훨씬 밖으로 밀려난 것도 농업의 위치를 잘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축산업은 국민에게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식품인 축산물을 값싸게 생산공급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보람을 가져왔다. 경제적으로도 어느정도 부(富)를 축적하였고 사회적 지위도 많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WTO출범과 함께 한국 축산농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해오던 생업은 외국의 축산농민에 넘겨주어야 할 위치에 놓였고 소비자들로부터는 안전축산물 생산을 요구받고 있으며, 특히 지난번 고름우유 파동에서 경험한 것처럼 축산농가의 보람과 긍지를 짓밟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농장의 주위에서는 혐오산업으로 분노처리가 가장 큰 당면 문제로 대두되고 공해의 주범으로 잘못 인식 되는 등 축산업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 축산업을 다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축산농가에 희망을 심어 주어야 한다. 아무리 많은 촉진기금을 들어 부어도 희망을 잃은 농가에게는 밀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주는 일이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유스럽고 평안하기를 원한다. 많은 농가들이 무허가 건물이나 분노처리 문제로 법과 규제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하다. 97년 수입개방을 앞두고 불안하다. 최근의 사료곡물 가격인상으로 희망을 점점 상실해 간다.

축산농가에 희망을 주는 일은 간단하다. 정부가 축산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축산농민의 15년간 숙원인 사료 등 축산 생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자생력을 길러주기 위한 자조금 제도의 확립 등에서 출발할 수 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돼지콜레라, 오제스키 질병 등의 박멸대책은 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축산물 가공업무 행정체계의 일원화 등 축산농가에 희망을 주는 일들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 '한국인이면서 축산농민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그것은 축산농민에게 정부가 얼마나 희망을 줄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대답하면 정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축산농가에 희망을 주는 일은 간단하다. 정부가 축산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축산농민의 15년간 숙원인 사료 등 축산 생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자생력을 길러주기 위한 자조금 제도의 확립 등에서 출발할 수 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돼지콜레라, 오제스키 질병 등의 박멸대책은 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